

제13차 국제광산업협회 연차회의에 다녀와서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2008.10.6~10.7)한 제13차 국제광산업협회(ICOIA) 연차회의에 한국대표로 전영복 상근부회장과 한국광산업진흥회 운영위원회 신용진 (광주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단장)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국내 광산업동향 및

한국광산업진흥회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특히 내년 2009광주세계광엑스포 개최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아울러 엑스포 기간 동안 한국(광주)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 14차 ICOIA 회의 추진 계획 등도 함께 발표하였다.

매년 개최하는 ICOIA(International Coalition of Optoelectronics Industry Association) 연차 회의가 올해로 13회차를 맞아 호주광산업협회(OIA)가 주최,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하여 총 10개국 회원국 중 9개국이 참가, 각 나라별/협회별

ICOIA International Coalition of Optoelectronics Industry Association

주요현황 및 광산업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동 ICOIA모임은 2000년까지 4개국이 참여하였고, 2001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 6차 회의부터 한국을 대표하여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와 싱가포르의 PAS가 참여하여 6개국 회의로 발전하였으며, 제 7차 회의를 한국(서울)에서 개최한 이후로 한국이 추가로 ICOIA 회원으로 인정되었으며, 제 8차 회의부터 독일, 호주, 프랑스(EU), 홍콩이 참여하는 10개국 모임이 되었다. 회원국 중 유일하게 회의 개최를 두 차례하는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내년도 2009광주세계광엑스포 기간에 맞춰 다시 한번 한국(광주)에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국광산업의 메카인 광주의 발전면모를 세계에 널리 알릴 좋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참가국들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호주는 호주광산업협회(OIA)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투자지원그룹 Ai에 대한 소개 및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의 광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전략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생물공학, 정보기술, 제조기술, 에너지환경기술 및 디자인 등) 호주내의 광산업 분포도가 시드니 → 멜버른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는 추세로 약 49% 이상이 Lighting (광통신분야) 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그린에너지·그린포토닉스를 설명하며 자연환경을 생각하는 광산업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이를 주제로 한 Optimism Conference & Exhibition (2009. 5. 19~21),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개최할 전시회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아울러 미국 내의 광산업은 LCD, Display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OLED가 눈에 띄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너무 높은 가격 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소개하였다.

일본은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도표를 통해 일본 내의 현황에 대해 소개를 했으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꾸준히 생산량 및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나 Display, 입출력기기, FTTH 및 광전자셀이 2008년도의 주요 분야로서 매



ICOIA International Coalition of Optoelectronics Industry Association



출액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는 OLED display, Blu-ray Disc 등이 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콩(HKOE)은 지금까지 ICOIA회의에 참가했던 내역을 위주로 그간 활동한 주요 내용 및 HKOE의 설립역사에 대해서 발표했으며, 홍콩 뿐 아니라, 중국 내의 우한이 광산업의 떠오르는 신생지역으로 그에 대한 발전 가능성 및 지역적으로 광산업 관련 기업체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소개하며 관련 특색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협회 회원들이 중국내의 COEMA(광산업협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학문·학술적인(academic) 협회로 소개하였다.

끝으로 한국은 광산업 분야의 전체무역현황 (2004~2009 전망치) 및 분야별 (광통신, 광원기기, 광정밀기기, 광소재 등) 매출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최근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LED 동향 소개 및 LED조명도시조성사업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한국광산업진흥회 주요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해외마케팅지원사업 (LUXCO제품 선정 등), 2008국제광산업

협회, LED신호조명시범구축사업, 해외우수인력유치지원사업과 2008광융복합산업 신기술 세미나를 포함하여 개최한 세미나 결과 및 성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아울러 내년도 한국(광주)에서 개최하는 제 14차 ICOIA 회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09광주세계광엑스포에 대한 홍보영상물 시청 등 엑스포 최종 계획을 발표하여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금번 회의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 홍콩 등에서는 LED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OLED 등 display 분야에서도 점차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었으며, 또한 최근에 유가문제, 친환경문제와 결부되어 광산업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걸 엿볼 수 있었다.



각국에서 발표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볼 때 국내의 많은 산업체는 물론 정책입안 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에서도 특성에 맞는 미래 발전분야 특히 산업간 접목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등 산업

정책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시사점을 안고 왔다.

또한 유럽 등 광선진국가에서 LED 표준화 정책을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우리 한국 광산업도 LED 표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타국가에 입지를 뺏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할 뿐 아니라, 광산업체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동향에 대해 발빠른 정보 획득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역시 지난 8월에 개최한 2008광융복합산업 신기술 세미나를 비롯한 광+타산업과의 융복합산업을 집중 연구, 새로운 아이টে를 모색하는 등 광산업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일조하고 있는 바, 향후 광산업과 타산업의 융복합 R&D 연구회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화 연계 방안을 도출하는데 힘을 써 선진 광산업 국가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에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최하는 제14차 ICOIA 회의를 개최해 15개국 광산업협회 관계자를 모시고, 한국의 광산업 육성 정책 홍보는 물론 광주 광산업 클러스터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정립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ICOIA 참여국 명단

국가	단체명	대표자	비고	
한국	한국광산업진흥회 KAPID	전영복 (Jeon Young-Bok)	10개국 협의회 회원국	
호주	호주광산업협회 OIA	로레인 릴리 (Lorraine Lilley)		
미국	북미광산업협회 OIDA	마이클 레비 (Michael Leiby)		
일본	일본광산업협회 OITDA	야수히사 오다니 (Yasuhisa Odani)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광산업협회 SOA	크리스 그레이시 (Chirs Gracie)		
홍콩	홍콩광산업협회 HKOEA	다니엘 라우 (Daniel Lau)		
유럽연합(EU)	유럽연합광산업협회 EPIC	토마스 피어설 (Thomas Pearsall)		
독일	독일광산업협회 OPTech-NET	디르크 칼리노브스키 (Dirk Kalinowski)		
스위스	스위스레이저협회 Swisslaser	크리스토퍼 하더 (Christoph Harder)		회원미정
※ 대만(PIDA), 싱가포르(PAS)는 불참하였음.				
호주	호주빅토리아정부 제조기술산업부	로빈 오웬 (Robin Owen)	정부 관계자	
	호주광산업체 BAE Systems	제리 스미스 (Gerry Smith)	호주현지 광산업체	
		패트릭 클로베콘 (Patrick Klovekorn)		
일본 광산업체(호주점) HITACHI	사이몬 아더 (Simon Arthur)			